

HPAI 발생과 양계산물 소비동향 분석

- 2003년보다 빠른 회복세 보여 -

지난해 11월 22일 전북 익산 육용종계장을 시작으로 27일 육용종계장, 12월 10일 김제 메추리 농장, 12월 21일 충남 아산 종오리 농장, 최근에는 1월 20일 충남 천안 산란계 농장까지 두 달여간 5차례의 HPAI 습격으로 국내양계산업 피해가 고조되면서 양계인 및 양계관련 종사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음은 현재까지 진행된 AI 발생 현황으로 지난 2003년과 2006년 발병에 따른 양계산물 소비동향분석과 함께 이번 HPAI 발생으로 정부에서 시행한 AI 피해에 따른 대책마련안을 정리하였다.

1. AI 발생 현황

지난해 말 네 차례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병 이후로 12월 26일 신고된 아산시 둔포면 육계농장의 폐사원인은 뉴캐슬병으로 확인되었고, 12월 28일 신고된 전북 순창군 소재 종오리 농장의 산란을 저하는 농장주의 사양관리 미비, 1월 3일 신고된 전남 곡성군 소재 육용오리 농장은 44일령 2,500수중 500마리 폐사가 과사성 장염으로 진단되면서 상황이 종식되는 듯 했으나 마지막 발생 한달만인 1월 20일 천안시 풍서면 3만수 산란계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 되면서,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김제 AI 발생지역인 위험지역(반경 3km이내)은 살처분 완료 후 21일이 경과하였고 특별한 이상징후가 없는 것을 토대로 방역실시 요령에 따라 경계지역으로 전환(1/5)되었고, 12월 21일 종오리 농장에서 발병된 충남 아산 AI 위험지역 역시 경계지역(1/15)으로 전환 이후 AI 관련 살처분 농장 종사자가 AI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항체가 형성된 무증상 감염자(1명)가 확인되면서 사람간에 전파되지는 않는 항체임에도 AI가 다시 한번 언론에 보도(1/11)되면서 방역당국에서는 철새유입기간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그 와중에 우리나라와 근접한 일본 미야자키현에서 지난 1월 13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되면서 수입금지 조치(1/15)가 취해졌으

며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지역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 AI 발생 현황 비교, 분석

국내에는 지난 2003년과 2006년 두차례의 HPAI가 발생되면서 앞으로 주기적인 연중행사가 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따라서 지난 2003년과 2006년도에 발생한 양상을 발생양상 및 소비경향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았다.

발생양상을 먼저 살펴보면, 지난 2003년에는 10일부터 23일까지 거의 13일만에 14개 농장이 집중적으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였으며, 이후 5일, 10일 간격으로 1건씩 발병하다가 마무리가 되었다고 생각되던 3월 20일 경기도 양주에서

마지막 발생된 바 있다. 발병지역도 전북과 강원도를 제외하고 전 지역에서 19개 농장이 발병되었다.

하지만 2006년에는 11월 21일 전북 익산에서 처음 발병된 이후 5일, 10일 간격으로 1건씩 발병 이후 한달후 1건의 발병으로 총 5건의 사례가 발병되었다. 이를 놓고 볼 때 HPAI가 집중 발생된 직후인 2003년 12월 23일 이후의 상황과 2006년 처음 발생되었던 이후의 상황이 유사하게 전개되는 감을 느낄 수 있다.

이대로 고병원성 AI가 종식된다면 2003년에 비해 2006년도에는 발빠른 대응으로 초기방역에 성공해 조기에 상황을 종료시킬 수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닭을 포함한 축종별 발생양상을 보면 2003/4년과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당시에는 오리와 산란계가 8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는데, 2006년에는 육용종계(2건)와 산란계(1건), 메추리(1건), 종오리(1건)로 분포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도표1).

표1. 2006년도 AI 방역조치에 따른 살처분 농가 (업체포함, 12.28기준)

구분	익산	김제	아산	소계	
육용종계	농가수(호)	13	-	-	13
	사육수(마리)	230,762	-	-	230,762
산란계	농가수(호)	12	71	1	84
	사육수(마리)	51,857	77,550	2,000	131,407
육계	농가수(호)	58	-	1	59
	사육수(마리)	230,877	-	500	231,377
토종닭	농가수(호)	7	74	-	81
	사육수(마리)	245,000	988	-	245,988

3. 소비부진에 의한 어려움 여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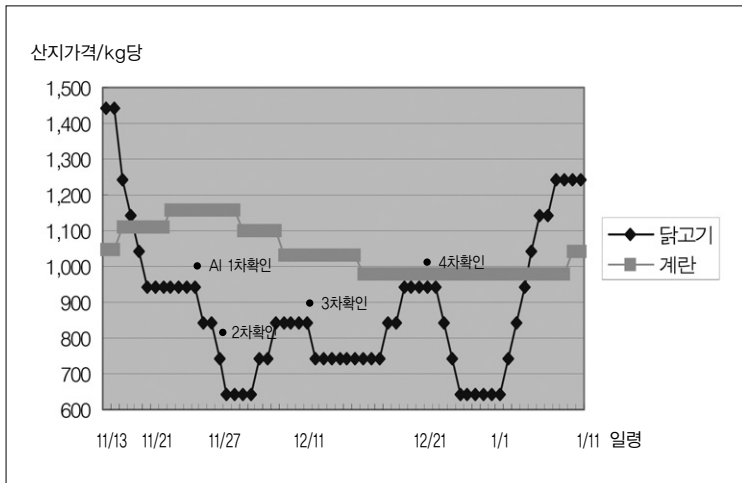
AI로 인한 소비하락 양상은 2003/4년과 2006년이 하락폭과 기간에 차이가 있을 뿐 거

표2. 천안 산란계 농장 AI 발생지역 가금 등 사육현황

(2006. 1. 20발병)

구분	계		산란계		육계		종계		오리		메추리		돼지	
	농가	마리	농가	마리	농가	마리	농가	마리	농가	마리	농가	마리	농가	마리
오염지역	12	279	10	273	-	-	-	-	-	-	-	-	2	6
위험지역	23	386	13	249	1	67	-	-	7	92마리	2	70	-	-
경계지역	55	1,527	37	1,112	10	260	1	33	3	90마리	4	121	-	-
계	90	2,191	60	1,634	11	327	1	33	10	182마리	6	191	2	6

- 익산·김제·아산의 사례와 동일하게 위험지역(3km)내 사육 가금류 살처분 조치
- 2007년 1월 21일 현재 55,000수 살처분 작업중



기간 : 2006년 11월 13일~2007년 1월 11일(닭고기:원/kg, 계란:원/10개)

〈도표1〉 AI발생에 따른 닭고기와 계란가격 추이

의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었지만 2003년에 비해 회복은 빠르게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2003/4년을 잠시 되돌아보면 육계의 경우 질병 발생보고가 되기 전인 12월 12일 kg당 산지가격이 1,000원을 기록하던 것이 17일 500원까지 급락하였고, 이후 상승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이듬해 2월 중순까지 2달동안 700원 이하를 기록하였다.

계란의 경우 질병발생 이후 소비감소 현상이 나타나면서 체화현상을 보여주었으나 가격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동남아 지역의 질병 발생 보도와 경남 양산의 산란계농장에서의 AI 발생 등이 장기화되면서 2월 중순까지 농가 실제거래가격이 개당 50원 이하까지 하락하기도 하였다.

2006년도를 보면 의심사례가 발표되기 전 940원을 기록하던 육계 산지가격이 고병원성으로 발표가 난 25일부터 큰 폭으로 하락하여 27일 2차 발생확인 이후(28일) 640원까지 하락하

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상황은 다소 진정기미를 보이다가 3차 발생확인이 발표된 12월 11일 전후로 다시 740원으로 1주일 이상 기록한 후 상승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12월 21일 4차 발생이 확인(신고는 12월 11일) 되면서 다시 가격하락을 보였으며 정상궤도에 오르기까지는 11월 21일 이후 40여일이 소요되었다.

계란의 경우에는 비축물량으로 인해 발생보도 이후 1주일까지는 가격면에서 다소 영향을

받지 않았으나 체화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11월 말부터 가격이 하락한 이후 서서히 회복되면서 AI 이전에 수준까지 오는데 40여일이 걸린 것을 알 수 있다.

도표1을 보면 AI 발생 일주일 전(11월 13일)부터 안정세를 찾기 시작한 1월 11일까지의 닭고기와 계란 가격을 보면 그 양상을 쉽게 알 수 있는데 계란이 다소 늦게 반응을 보이기는 했지만 회복 기간과 양상은 닭고기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표에서는 육계가격이 계란가격 보다 AI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불안정함을 쉽게 알 수 있다.

4. 2003년에 비해 충격 덜해

도표2과와 도표3은 2003/4년과 2006년도 당시 서울시내 유명 H클럽에서 조사한 닭고기 판매 동향을 나타낸 것이다.

HPAI 발생 이후 소비가 크게 감소한 것을 한

눈에 알 수 있으며, 특히 2003/4년에는 하락하여 다시 소비가 정상화 되기까지 60일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06년에는 2차 발생 보도 이후 소비가 가장 많이 감소한 11월 28일 이후 서서히 소비가 살아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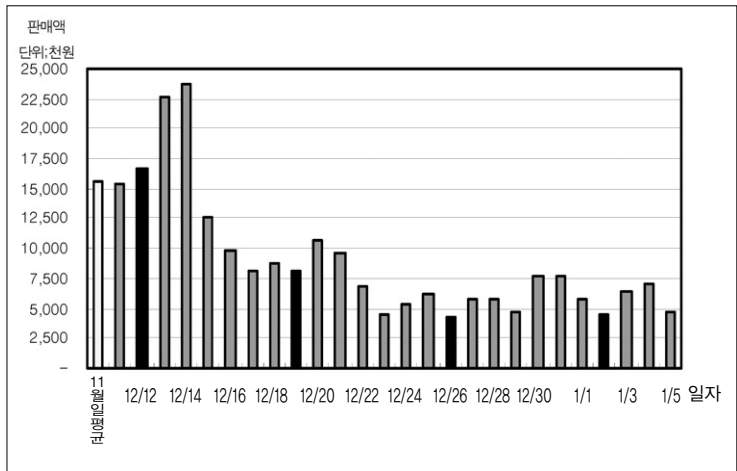
2003/4년 당시에는 AI발생 이후 닭고기 소비가 60%, 계란 소비가 30%정도 감소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06년에는 닭고기 소비가 30%, 계란 소비가 10% 이내로 그 충격은 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이유는 발생 건수가 2003/4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기도 했지만 언론매체에서의 발생 보도가 2003년과는 큰 차이를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즉, 각 언론매체들도 사실 보도 위주로 보도가 되 혐오스러운 장면을 최대한 자제했으며, 소비활동까지 함께 방영하는 등 양계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기도 하였다.

5. AI 피해에 따른 정부대책 추진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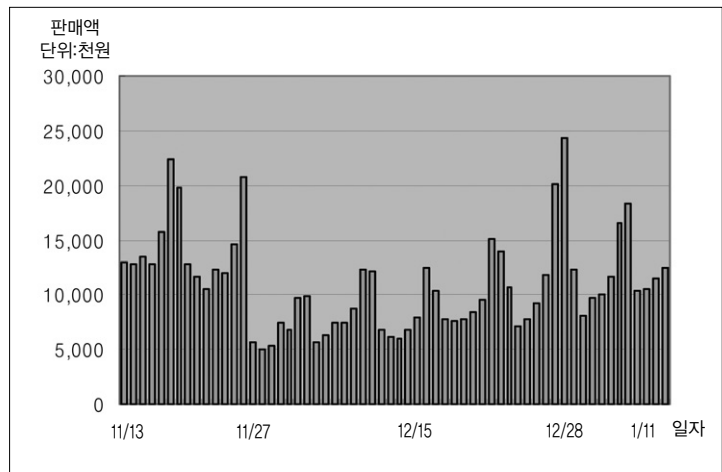
AI 발병으로 정부에서는 가금산업의 조기 경영안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을 마련하면서 피해 농가의 빠른 회생을 돕고자 추진하고 있다.

지난 12월 18일부터 익산·김제지역의 닭·



기간 : 2003년 12월 11일~2004년 1월 5일, 자료협조 : 농협중앙회

〈도표2〉 2003년 서울시내 유명 H클럽의 닭고기 판매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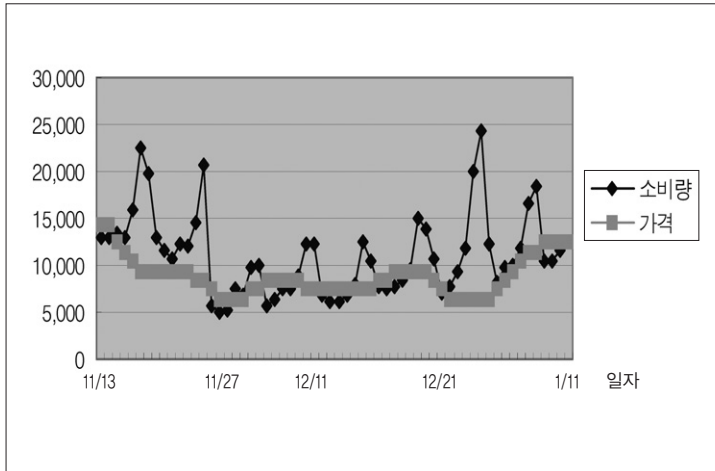


기간 : 2006년 11월 13일~2007년 1월 11일, 자료협조 : 농협중앙회

〈도표3〉 2006년 서울시내 유명 H클럽 닭고기 판매량 추이

오리고기의 수매(산지가격 950원 이상이 될 때까지)가 개시되어 2007년 1월 12일 총 닭 430천수의 수매를 완료하였다.

또한, AI 발생 경계지역(3~10km)내에서 유통업체가 기피하거나 저가로 구매하고 있어,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산란계를



기간 : 2006년 11월 13일-2007년 1월 11일, 자료협조 : 농협중앙회
<도표4> 닭고기 소비(H클럽)와 가격추이

500수 이상 사육하는 농가로 농가별 1일 생산량의 15일분 이내에서 계란판매차액을 지원한다. 지원물량(한도)는 1,239천수(해당지역 산란계 사육수수)×80%(산란율 적용)×15일로 총 14,868천개를 지원한다.

AI로 어려움이 있는 농가를 회생시키기 위해 1월 11일부터 아산지역의 계란 판매차액으로 25원/개당 15일간 지원되었다. 하지만 일부지역에서는 AI균의 최대 잠복기인 21일까지 연장해 주어야 한다는 강한 의견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가금산업 경영안정지원지침(2007.1.11. 농림부)에 따르면 AI로 이동제한 조치를 받은 오염·경계 지역내 사육농가로서 이동제한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전까지 가금류 및 계란을 출하한 실적이 있으며, 출하·도태 후 병아리를 재입식하지 못한 농가는 출하일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서를 제출할 경우에 소득안정자금 보조 지원책을 마련하여 피해 농가에 어려움이 없도록 대책마련을 제시하였다.

육계(토종닭 포함)의 경우 지급액=미입식수수×수당소득×[농가별 입식제한기간/사육기간]으로 수당소득=320원/수로 지난 2004년 306/수 보다 14원가량 지원단가가 높게 적용된다.

산란계(케이지 사육)의 경우 지급액=미입식수수×수당소득×[농가별 입식제한기간/365]로 수당소득=1,456원/수로 지난 2004년 2,872원/수의 절반 수준으로 적용된다.

살처분 농가 가축입식비 지원책으로 AI 방역조치에 따른 살처분

농가(표1)에 한하여 재입식 허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입식하는 경우 1회 사육능력에 해당하는 가축 입식비용을 지원한다.

산란계의 경우 중추는 3,180원/수, 병아리는 1,440원/수, 육계의 경우 종계 3,000원/수, 실용계 510원/수, 토종닭 350원/수 으로 연리 3%로 2년거치 3년 상환의 조건으로 지원된다.

고병원성 AI가 일본은 물론 태국,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2004년도 경우에서와 같이 종식되었다고 생각하는 느슨함을 틈타 3월 20일 발생한 것을 상기하여 3월까지의 경계를 늦추어서는 안 될 것이며, 동남아지역으로 여행하는 관광객들은 농장방문을 자제하고 부득이 방문하였다면 철저한 소독을 통해 입국하는 세심함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취재 | 장성영 기자
 ch-spirow@hanmail.net

